

시선

사설

4월, 벚꽃놀이 후의 단상

모든 일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自己)들이 한 데 어울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함양하는 능력이 항상 강조되곤 한다. 여러 관점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너머의 진실’, ‘현상 이면의 실상’, ‘외연과 내면’ 같은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주문일 테다.

요 몇 년 새 다소 빨라진 벚꽃 개화시기 덕분에 4월의 캠퍼스는 일찌감치 벚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지는 이 거리의 풍경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벚꽃놀이를 즐기는 구성원들은 먼저 황홀경을 자아내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벽 너머 이면을 배려해야 한다. 그 곳에는 수많은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매년 벚꽃과 함께 찾아오는 왁자지껄한 웃음과 고향, 낭만에 찬 비명과 우렁찬 게임소리 등등으로 곤욕을 치른다. 물론 군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비일상적 환상성을 발현하는 것이 랜드마크 공간의 숙명 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유희만을 위해 지어진 테마파크가 아닌 이상 향유자들은 생활자의 일상을 최대한 존중하며 공간을 누려야 할 것이다.

벚꽃놀이를 즐기는 구성원들은 이와 더불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따스한 봄바람과 흩날리는 벚꽃의 이미지는 이곳을 찾은 이들을 쉽사리 낭만적 환상성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이 유희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현실의 시공간이 찾아온다는 점을 향유자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본관놀이 기간에는 미화원의 청소노동시간이 평균 36분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본관놀이가 끝난 서울캠퍼스 본관 앞 마당,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의 저녁은 넘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다.

이와 함께, 대학은 매년 대성황을 맞는 본관놀이가 우리학교의 대외이미지 혹은 내부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관놀이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내방객 역시 우리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타 대학생과 인근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단체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들이 벚꽃놀이 기간 경험하는 우리학교에 대한 인식 이 단지 ‘벚꽃 필 때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에 머물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어갈 지는 대학 측이 사전에 충실히 대비하고 준비하기 나름일 것이다.

아울러, 유희의 가슴 한 켠에 벚꽃과 함께 찾아오는 4월의 의미에 대한 마음을 새겨보는 것도 좋겠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에는 4·16과 4·19가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 본관 바로 곁에는 4·19혁명을 기념하는 ‘4월 학생 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해마다 4월 19일 즈음이 되면 뱃나무 스스로 꽃잎을 흩뿌려 기념탑 주변에 한화하곤 한다지만, 뱃나무 뒤쪽 너머의 기념탑을 굳이 찾아보고 바라보며 우리가 봄꽃에 맘껏 즐거워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준 역사의 흐름에 대해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상아탑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자세일 것이다.

지식민주주의 시대의 주인공 역시 ‘지민’

미디어 여론 동향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김종영(사회학) 교수가 저서 <지민의 탄생(휴머니스트, 2017)>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조망했다.(엘리트주의시대에 맞선 똑똑한 시민, ‘지민’의 탄생/대학주보 온라인, 2017.4.10) 김 교수는 삼성 백혈병 사태, 광우병 촛불운동, 황우석 사태, 4대강 사업을 ‘지식정치’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한다. 오늘날 대부분 정치적 이슈는 지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 지식 엘리트가 시민을 배신해 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식정치를 마주한 시민이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식을 찾는 ‘시민으로서의 지식인’인 ‘지민(知民)’으로 변모하는 장면을 조명한다. 김 교수는 한국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 주의 주제 - 허위 진료확인서 징계 파문

진료확인서 위조, 범죄다

이수형 기자

dltdb112@khu.ac.kr



교수는 출석을 부르고 학생들은 부산스럽게 자리에 앉는데 웬 학생 하나가 시선을 땅에 두고 잔결음으로 교실을 빠져나간다. ‘출퇴’현상은 언제나 본인만 느끼는 긴장감으로 스릴 넘치는 탓에 주변 시선은 신경 밖이다. 몇몇 이들에게 출퇴가 뒷말이 나올지언정 한 시간 여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한 생활방식이다. 출퇴가 어려운 수업에는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내밀곤 다음 수업엔 괜히 아픈 시늉을 한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빠지던 것이 점차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된다.

지난주 전주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위조지폐도 누군가에게는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영리한 생활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엔 여지없이 중범죄다. 위조 진료확인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위조했는가 사문서를 위조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범죄가 아니진 않다.

편법 출석은 규정을 피해 성적평가를 혼란시킨다는 점에서 컨닝이나 팀플 프리라이딩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죄목에 사문서 위조가 추가되면 사실상 형법의 논리가 개입해 적발 시 정학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형법이란 것이 대학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다. 흔한 말로

도덕불감증이라 한다. 이번 사례가 그렇다. 18명이 징계받은 이번 건은 영리함이 난무하던 대학에 경종을 울린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진료확인서 위조를 비롯한 수법이 워낙 다양한데, 시도가 너무 많은 탓에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단돈 1,500원에 진료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들, 심지어는 성균관대처럼 모든 강의에 사인 출석부를 도입한들, 각 병원에 전화를 돌려가며 진료사실을 확인해 위조 진료확인서를 잡아낼 수 없는 노릇이다. 전화 몇 통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순 있다. 다만 새 수법이 등장하겠다. ‘전화확인’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 널렸다.

출석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때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번 것처럼 징계로 본보기를 보이는 방식. 두 번째는 출석규정을 지금보다 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가 이 중 두 번째 방식을 쓸 경우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되돌아온다. ‘피치 못 할 사정’의 기준이 뻣뻣해진다. 이내 우리는 신용받지 못해 자유로이 병원조차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된다.

벚꽃이라도 폼다하면 왠지 감기가 유행하고 강의실은 텅텅 빈다. 시험이 끝난 축제시즌의 강의실 풍경도 쉬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출석이야 물론 빠질 수 있다. 도는 넘지 말자. 학교 안에서도, 범죄는 범죄다.

3년의 봄

그리고 드디어 봄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꽃피는 계절이다. 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반영하기로 유명한 우리학교는 올해에도 화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한다. 꽃들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자신들의 교태로움을 최대한 내비춘다. 학생들도 만개한 벚꽃에 하나같이 설레는 표정이다. 신입생들은 낭만적인 캠퍼스 사랑을, 재학생들은 또 다른 사랑을, 복학생들은 기적(?)을 꿈꾸며 본관 앞에서 그리고 사색의 광장에서 자리를 갖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어떠한 형태로든 봄은 많은 사람들을 설레고 꿈꾸게 한다.

하지만 올해의 봄은 이전의 봄과 사뭇 다르다. 얼마 전 세월호가 인양되어 드디어 육지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맘때쯤 벚꽃은 폼났지만 세월호에 대한 느낌은 바다 속의 깊이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세월호는 매일 뉴스를 통해 비춰지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4년 4월 16일 나는 군 복무 중이었다. 최전방 GOP경계 근무를 맡았던 나는 전방에 투입되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생생히 기억한다.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춘 부대특성상 식당의 뉴스채널에서 전해지는 세월호의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문학에서만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 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비극적이었다. 만약 그날의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함께 이 공간에서 봄을 만끽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기자활동을 위해 집회 취재를 가거나 광화문을 방문할 때면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곳에서 하나의 뜻으로 싸워온 가족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며 과연 기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지만 중요한 사건사고마다 느껴지는 책임과 부담감은 실로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하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끝이 없다. 모든 공부에는 끝이라는 게 없겠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사의 이야기를 실시간각으로 전달하는 언론은 더욱 그렇다.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언론인 고(故) 리영희 선생은 2004년 기자회견 40주년 인터뷰에서 다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진실이지요,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는 직업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부족한 학교신문이지만 학생기자로 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많다. 학내 청소노동자 자회사 설립문제와 우리 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기대와 우려, 총학생회와의 견제와 협업, 학내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와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산적한 문제들. 벚꽃이 지고 정신없는 중간고사가 시작되었지만 오늘은 벚꽃을 만끽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세월호와 기자의 역할을 생각해 봤다. 나와 우리 신문사의 역할이 부디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일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역할이 되길 희망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 (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1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